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원용선 편집인 : 이계홍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T. 02)733-0303 F. 02)733-0306 인쇄 : (주)한우리SJM

2014년 (단기 4345년) 12월 23일 (화)

<http://dongguk.info>

제233호

종단 수뇌부 외압 ‘총장 선임’ 파행

사립학교법 저촉여부 확인후 이사회 다시 개최

‘1인 후보’ 놓고 이사들간 의견 엇갈려



▲ 12월 16일 열린 이사회는 차기총장 선임안을 다음 회기로 미뤘다. (사진=법보신문)

모교 제18대 총장 선임이 파행을 겪고 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하 ‘이사회’, 이사장=정련스님)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차기 총장 선임을 위한 제287회 이사회를 열었으나 “선임 이냐” “연기냐”를 둘러싸고 이사들 간 의견이 대립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5시간 반 만에 폐회됐다.

이날 이사회는 3명의 총장추천위원회 후보 중 김희옥 현 총장이 물러나고 조의연 교수(영어영문학)마저 종단 개입에 반발하며 잇따라 사퇴하면서 보광스님(한태식 교수) 단독으로 남아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차기 총장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해 예정대로 이사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종단의 선거 개입 문제가 논란으로 부상하는 만큼 여론을 의식해 총장 선임을 미루자는 의견으로 나뉜 것이다.

결국 이사회는 “한 명의 총장 후보

자가 있는 경우, 해당 후보자는 총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저촉되는지를 교육부에 질의하고 회신이 오는 대로 다시 이사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12월 11일 김희옥 총장은 동국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종립대학 총장직은 1회로 한정함이 좋고 연임은 적합하지 않다는 종단内外의 뜻을 들어 재임의 뜻을 철회하고 총장 후보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조계종 고위직 승려들과 함께 오찬을 한 자리에서 종단内外에서 연임에 부정적인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종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이사장 정련 스님, 동국대 이사 일면 스님(호계원장) 스님이 참석했다. <2면에 계속>

동국대학교 총장 선임 파행에 대한

총동창회의 입장

우리 25만 동문들은 건학 108주년에 빛나는 모교 동국대학교가 ‘세계속의 동국’으로 크게 도약하려는 시점에서 제18대 총장 선임문제로 혼란과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불미스런 사태는 지난 12월 11일 종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수뇌부 회동의 탈법적인 전횡으로 촉발되어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자 3인중 2인이 사퇴하면서 물의를 일으켰으며, 우리는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월 16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차기 총장 선임문제를 놓고 5시간여에 걸쳐 격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병폐인 거대 권력들의 ‘슈퍼갑’ 횡포가 학문의 전당에서까지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권력은 민심을 거슬릴 수 없으며,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는 법인 이사회에서의 양심있는 몇 분 임원의 문제 제기는 그나마 모교 동국에 대한 희망이요, 빛이었다.

우리는 모교가 이번 총장 선임과정에서 보여준 ‘종단의 권력적 횡포’와 ‘무기력한 이사회’ ‘총장추천위원회 무의미’라는 여러 문제점을 거울삼아 하루라도 빨리 ‘상식과 순리’에 따라 사부대중의 중의대로 원만히 수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종단 지도부는 동국대학교의 혼란을 야기시킨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이후의 총장 선임 개입과 외압을 즉시 중단하라.

-대학의 최고기구인 학교법인은 차제에 외부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모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라.

-총장선임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지금까지의 총장 선임절차를 원천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선거절차에 의해 차기 총장을 선임하라.

2014년 12월 22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동문 일동

회비 납부 부탁드립니다

- 고문 100만원
- 지도위원 30만원
- 부회장 100만원
- 감사 10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이사 10만원

1년 연회비 3만원 국민은행 665501-04-045285

(예금주 : 원용선 동국대총동창회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총장선임 방해 행위’ 고소

본회 송영인(63/67통계, 재학시 총학생회장, 국사모 회장) 부회장 등 고소인 4명과 동문 1백여명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종단 수뇌부 5인을 ‘상위직을 이용한 위력의 행사로 형법상 강요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죄’(형법 제324조)로 12월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대표제출한 송영인 동문은 “모교 차기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법적 권한이 없는 조계종 고위직 승려들의 외압과 횡포의 일탈행위는 현행 법을 현저하게 벗어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2월22일 최광

백 제47대 총학생회장 당선자와 최창훈 제31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당선자, 김태현 식품공학과 재학생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소인들은 지난 12월1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김희옥 총장과 만났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현응, 포교원장 지원, 중앙종회의장 성문, 호계원장 일면 스님 등 5명이다.

추대위, 총장후보 3명 추천

제18대 동국대 총장 후보로 김희옥 혼 총장과 불교학부 교수 보광 스님, 조의연 영어영문학부 교수 등이 결정됐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안스님, 이하 총추위)는 12월4일 오전 10시 본관 5층 교무위원회의실에서 ‘후보자 추천’ 안건을 상정하고 각 후보 소견발표 뒤 무기명 비밀투표로 3명을 확정했다. 투표결과 김희옥 혼 총장은 참석한 총추위 25명 가운데

11표를 얻어 1위로 총장 후보로 선출됐으며, 보광 스님은 7표를 받았다. 조의연 교수는 3표를 획득해 연기영 법학과 교수와 동률을 이뤘지만 재투표에서 16표를 받아 총장 후보가 됐다.

총추위는 교원대표 12인, 직원대표 4인, 조계종대표 4인, 사회인사대표 3인, 학부대표 1인, 대학원생대표 1인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동문대표 2인은 동창회 분규로 인해 포함되지 않았다.

교내외 안팎 비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라”

〈1면에서 이어짐〉

이사장 정련 스님은 이사회에서 “그날 오찬 자리는 김 총장을 격려하는 자리인 줄 알았으나 자승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차기 총장으로 스님을 모시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종단의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총장후보였던 조의연 교수는 12월14일 사퇴 성명을 통해 “동국대를 어둠과 혼란속으로 빠뜨린 종단은 총장선거 개입을 즉시 중단하라”

면서 “대학의 최고기구인 재단이사회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번 18대 총장 선출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모교 재단이사회는 승려 이사 9명과 개방형 이사 3명, 동국대 총장을 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 승려 이사는 이처럼 13명의 이사 중 승려 이사가 과반이 넘는 이사회 구조에서 종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부 재가 이사를 선임할 때도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추천과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총장 선임의 권한을 가진 이사회가 예정대로 총장을 선임 못하면서 종단의 개입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총동창회는 12월22일 성명을 통해 “사회적 병폐인 ‘슈퍼갑’ 횡포가 우리 모교에서 벌어진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차제에 외부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총동창회 조직위원회(위원장=김오현)와 소통위원회(위원장=김종필)도 12월19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커피숍에서 별도모임을 갖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노·장·청·여성·직능별·학번별 대표성을 갖는 동문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진성서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12월14일 “재단 이사회와 관련 없는 다수의 스님이 사퇴를 권유했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 차기 당선자들은 12월16일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본관4층 로터스홀 앞에서 “정당성 훼손한 총장선거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는 등 종단의 총장 선거 개입에 크게 반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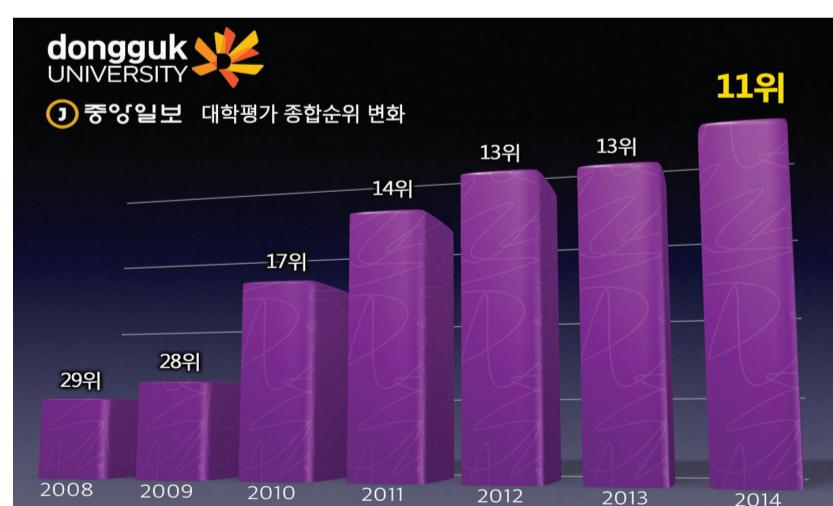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 11위 기염

교수 강의평가-연봉제 등 변화와 혁신정책 주효

모교가 10월6일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11위를 기록했다. 모교는 2005년 44위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 17위, 2012·2013년 13위를 거쳐 금년에 2계단 상승해 TOP 10 진입도 눈앞에 두게 됐다.

모교는 핵심지표인 국제화 3위(전년 4위), 평판도 15위(전년 17위), 교수 연구 16위(전년 19위), 교육여건 및 재정 22위(전년 25위) 등으로 모든 분야에서 고른 순위 상승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모교의 변화에 대해



“현법재판관 출신 김희옥 총장이 2011년 취임 후 교수들과 목요 오

을 강화했다. 학내에선 잡음 없는 개혁 비결로 이런 소통을 꾹는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또 “김 총장은 전국 100여 사찰을 찾아 학교 지원을 호소” 했으며 “김 총장 취임후 신공학관·산학협력관을 준공하는 등 이 공계 인프라가 3배 이상 늘어나면서 2005년 44위였던 동국대의 순위가 17위(2010년)→13위(2012·2013년)를 거쳐 올해 11위가 됐다”고 했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지역사립대학 6위, 설립50년이하 대학중 10위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사립대 순위는 영남대, 울산대, 한림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동아대 순이다.

“총동창회 양측 회장 모두 당선 무효”

서울중앙지법 판결… 회칙이 정한 선거절차 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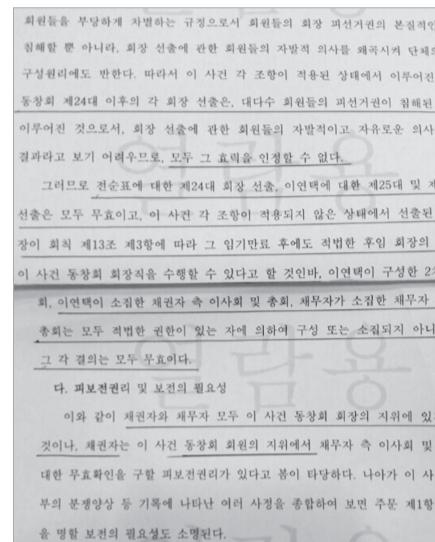
법원 결정따라 총동창회 새 회장 뽑아야 돼 고문단 중재 노력 ‘수용’ – ‘거부’ 서로 상반

제27대 회장 적법성을 두고 분규로 갈라섰던 동국대 총동창회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박종윤 – 송석환 양측 회장 모두 당선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총동창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11월 11일, 박종윤 측이 송석환 회장을 상대로 지난 5월 제소했던 ‘직무방해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장 출마 자격으로)선거 규칙인 발전기금 6억 원 조항이 피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발전기금 규정이 도입된 2007년 선거 때부터 당선된 24, 25, 26대 전임 회장은 물론 27대 회장 선출까지 결의된 모든 내용과 그들로 인해 행해진 행정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기탁금인 3억원의 두배에 달하는 6억원을 부담할 재산을 가진 일부 회원만 회장으로 출마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재산 정도에 따른 차별”이라며 “동창회 회원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인 피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발전기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제23대 회장이 회칙에 따라 임기만료 후에도



▲ 11월 11일 발표된 법원판결문 내용 일부

적법한 후임 회장 선출시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면서 “이연택 전 회장이 구성한 추대위원회와 박종윤 측 이사회 및 총회, 송석환측이 소집한 이사회와 총회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지에 의해 구성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각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판결문 요지 4면>

원용선 23대 총동창회장은 법원 판단과 고문단의 요청에 따라 11월 12일 회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원 회장은 “조속히 차기 회장을 선출해 동창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그동안 빚어졌던 상호 대립과 갈등을 치유해 모교 발전과 동창회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 회장은 11월 12일 곧바로 사무처 직원들도 인사발령을 내 동창회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많은 동문들은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이다.

권노갑, 류주형, 임덕규, 송석구 고문을 비롯해 이민희 · 원용선 상임 고문 등은 11월 12일 앰배서더호텔에서 회합을 갖고 “선배 고문단으로서 동문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 내홍은 끝났다”고 밝혔다.

권노갑 · 이민희 고문단 대표 및 원용선 회장은 11월 13일 발표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용선 23대 회장의 회장 수임을 뒷받침하고 “12월 16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등 동창회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고문단 회의내용 4면>

이에 앞서 송석환 동문은 11월 13일 동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현재 총동창회장은 23대 원용선 회장이기 때문에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박종윤 동문은 11월 13일 즉각 항고했다. 24대, 25 · 26대 회장 당선 무효 판결은 지난친 확대해석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관련 고문단은 11월 18일 긴급 회의를 열어 “원용선 회장에게 당초 12월 16일에 총회를 열도록 요청했으나, 동창회 대화합을 위해 내년초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재요청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종윤 측 항고에 법적 대응 조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등)는 지난 11월 11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박종윤과 송석환의 회장 당선은 모두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송석환 회장은 법원판결을 “존중한다”며 11월 12일 곧바로 사임하고 사무실을 떠났으나, 박종윤 회장은 “내가 회장임을 인정해 주었다”면서도 11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또 제출했다.

특히 박종윤 동문은 “1심 재판만 나오면 승패에 관계없이 물러나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해왔음에도 이를 뒤집고 또다시 법정으로 끌고가는데 대해 동문들의 실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박종윤 측이 분명한 법원판결을 자의로 해석하여 문자메시지, 편지를 보내 동문들을 혼란 속으로 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본회에서는 해당 동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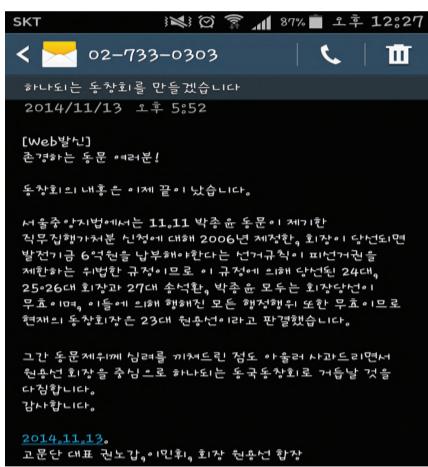
한편 박종윤 동문이 항고한 송사도 취하를 설득하던 방침에서 변경, 법정 대리인을 내세워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고문단 회동 “최고 의결기구 총회서 새 회장 선출하라”

원용선 회장 수임 뒷받침… 先 화합 · 後 총회 열기로

1 ~ 5차 고문단회의 중계

총동창회가 둘로 나누어져 법적 소송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로 고문단이 동창회의 앞날을 우려하며



▲ 권노갑 · 이민휘 고문, 원용선 회장이 공동으로 동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5차례에 걸쳐 숙의를 거듭한 끝에 최종 수습방안을 발표했다.

권노갑 고문을 비롯한 고문단 6명은 11월12일 앰배서더호텔에서 4차 모임을 갖고 “지금의 동창회 양분 사태는 모교 발전이나 동문 화합에 역행하는 일이다”면서 “동창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 정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1월11일 재판결과가 발표되면서 명분과 실리에 힘을 싣게 되었다. 4차 모임에는 권노갑, 이민휘, 류주형, 임덕규, 송석구, 원용선 고문 등이 참석했다.

제1차 모임은 10월30일 권노갑 고문과 이민휘 상임고문 중심으로 류주형, 임덕규, 김재기, 송석구, 원용선 고문과 이연택 전 회장 등 8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연택 전 회장은 “모두가 저의 불찰이다. 동창회 문제가 조기 수습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문단은 △박종윤 측과 송석환 측이 제기한 모든 법적 소송은 11월10일까지 취하한다. △동창회 정상화에 따르는 향후 현안 등은 고문단 회의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도록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1차 모임에는 박종윤 동문을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알려진 추대위원회 위원 8명중 5명(권노갑, 류주형, 임덕규, 김재기, 송석구)이 참석해 “사실상 박종윤 동문의 회장 선출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한 자리가 되었다.

이날 고문단 회동에서는 이연택 회장이 “동창회장을 할 사람이 없다. 동

창회가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서 박종윤 동문을 회장으로 뽑았는데 “나중에야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공감했다.

제2차 모임은 11월5일 열려 1차 모임에서 합의된 ‘고문단회의 합의사항 통보서’에 서명을 진행했다. 이어 11월10일 3차 회의때 박종윤, 송석환 두 당사자를 부르기로 하고 박종윤 측은 임덕규 고문, 송석환 측은 원용선 고문이 각각 연락책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박종윤 측은 11월7일 ‘직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추가 준비하면서 2건을 제출하면서 “고문단의 소송 취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11월10일 열린 3차 회의에는 송석환은 참석했으나, 박종윤은 법적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불참했다. 임덕규 고문은 이날 회의에서 “박종윤 회장의 경우, 패소하면 항고하지 않고 깨끗이 승복하고 물러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종윤 측은 11월11일 오전까지 법적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임고문에게 언급하고도 11월13일 마음을 바꿔 항고함으로써 동창회 사태는 다시 혼란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어 11월18일의 5차 긴급모임에서는 “박종윤 측과 송석환 측이 상호 비방행위를 모두 중지하고 동문사회에 화합과 존중하는 풍토가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에 총회를 열어 대통합을 이루자”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노갑 · 이민휘 고문 수습 앞장

세계한인회장 대회 참석차 모국을 방문하고 있던 이민휘 고문은 총동창회가 두 쪽으로 분열된 것을 알고 “가슴이 아프다. 동창회의 현 상황을 보고만 있는 것은 우리 고문들의 직무유기다”라며 권노갑 전 동창회장을 찾아가 “우리 고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문단 회의를 개최,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이민휘 고문은 “타대학 출신 지인이 우리 동창회 분열에 대해 물어볼 때 동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감을 느꼈다. 이는 비단 나만이 아니라 우리 동국인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감정이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직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문 요약

○ 주문

1. 송석환의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 2006년 이후 임원, 24대 전순표, 25 · 26대 이연택, 박종윤, 송석환 회장 모두 당선 무효
2. 제1항은 박종윤이 송석환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한다.
3. 박종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박종윤이, 나머지는 송석환이 각 부담한다.

○ 판단

- 다시 재판부는 이연택의 회장지위가 유효하였는지 검토하면서 선거규칙 제8조 제2항 등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조항(이하 ‘발전기금 조항’)은 ① 후보자 등록시 2억 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낙선하더라도 1억 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② 발전기금 6억 원 중 5억 원은 다른 회원과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회장선출 효력의 상실이라는 발전기금 미납의 효과를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 ③ 발전기금 조항은 6억 원이라는 고액(대통령 기탁금 3억 원의 2배)을 부담할 수 있는 일부 동창회원만 회장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재산의 정도에 따라 회원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 발전기금 조항은 24대 전순표회장 선출시부터 적용되었는바, 24대 회장 선출 아래 25대, 26대 이연택 회장의 선출은 모두 무효임
- 현재는 제23대 회장만이 회칙 제13조 제3항에 의거 적법한 회장 선임시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음
- 제23대 회장이 소집한 것이 아닌 박종윤측 또는 송석환측 총회, 이사회, 추대위원회 결의는 모두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무효임
- 박종윤, 송석환 모두 회장이 아님. 다만 박종윤은 동창회원의 자격으로서(회원은 누구나 가능) 채무자의 회장직무정지를 구할 수 있음

○ 검토

- 아직 24대 회장이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24대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23대 회장이 적법한 회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24대 회장 선거에 송석환, 박종윤이 입후보 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
- 향후 23대 회장이 주관하여 발전기금 조항이 개정되기 전의 동창회 회칙 및 선거규칙에 따라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 동창회 사무실 사용문제 : 박종윤은 송석환측의 동창회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구하였으나 이번 결정에서 기각되었고, 향후 누구라도 동창회 사무실은 사용할 수 있음

고양캠퍼스 상영바이오관 준공식

정상영 KCC 명예회장 118억여원 사재 출연



▲ 고양캠퍼스 상영바이오관이 지난 11월27일 준공식을 가졌다.

개교이래 후원자 이름 건물명 처음있는 일 지상 8층·지하 2층 연건평 9,467평 규모

모교가 11월27일 상영바이오관 준공식을 갖고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를 출범시켰다.

교육용 복합건물인 상영 바이오관은 KCC명예회장 정상영(법학과 53학번) 본회 고문이 118억원의 사재를 기부해 이뤄진 것으로 지하 2층, 지상 8층, 전체면적 3만1천241m²(9,467평) 규모이다. 개교 108년이래 학교 건물명을 후원자 이름으로 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김희옥 총장과 학교법

인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 KCC 정상영 명예회장, 원용선 총동창회장, 전순표 본회 고문, 송석환 동진기업 회장, 최성 고양시장과 동문 1백여명을 포함해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물 입구에서 테이프 커팅, 1층 명예의 전당 제막식에 이어 8층 상영홀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김희옥 총장은 식사를 통해 “상영 바이오관은 동국대 동문이신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큰 뜻이 담긴 건물”이라고 강조하고 정 명예회장에게 감

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재단이사장 정련스님은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는 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생명과학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공간”이라고 말하고 “상영바이오관 준공을 통해 학생들이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8억원의 사재를 출연한 KCC 정명예회장은 “건물의 이름을 ‘상영바이오관’이라고 지은 것은 내 이름을 기념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대학과 생명과학 산업, 그리고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함께 공존공영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정 명예회장은 “사람의 얼굴



정상영 KCC 명예회장

에 눈 코 입 귀가 있는데 눈이 멀다고 해서 입이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만들린다고 코가 대신할 수 없다”면서 “재단은 재단답게, 교수는 교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동창회는 동창회답게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모교는 2005년 고양시 식사동에 동국대 병원을 개원한 이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 조성을 시작해 그동안 산학협력관, 종합강의동, 약학관 등을 준공 한 바 있다.

모교는 이번 상영 바이오관 준공으로 내년부터는 바이오시스템 대학 4개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의 수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로서 고양캠퍼스는 재학생 1천 600여명, 교수 200여명, 평생교육원과 과학영재교육원 학생 200여명 등 모두 2천여명이 생활하는 교육공간이 됐다.

동창회관 건립 양해각서 체결

108주년기념관 내 회관 입주하기로



▲ 총동창회와 모교간에 동창회관 건립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송석환 총동창회장과 김희옥 총장은 9월18일 모교 본관 로터스홀에서 혜화문 일대에 세워질 108주년기념관(가칭)에 총동창회관 입주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송 총동창회장은 “동창회관 건립은 25만 동국 가족의 숙원사업이자 핵심사업으로 모교의 108주년 기념관 건립을 계기로 희망의 불씨를 심게 되었다”면서 “학교, 재단, 총동창회가 하나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동국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희옥 총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우리 대학과 총동창회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며 “학교와 동문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다 보면 더욱 신뢰받는 명문대학으로 나아갈 것”이

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2007년 11월 8일 제24대 전순표 총동창회장이 체결한 총동창회-학교-재단의 ‘동창회관 건립에 관한 기본합의서’ 정신에 입각하여 새로 건립되는 모교 108주년기념관에 ‘총동창회관’을 세우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교는 총동창회에 건학108주년 기념관(소재지: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내 1개층 약 500평 규모의 공간을 동창회관으로 무상 제공한다 △동문들의 결혼식장 등으로 사용될 1천석 규모 대형컨벤션홀 및 게스트하우스 사용 횟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 설계 이후 구체적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연택 재단이사 사퇴” 피켓 시위

50년대부터 90년대 학번까지 노·장·청이 고르게 망라된 동문 50여명이 5차례에 걸쳐 재단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모교 본관앞과 4층 로터스홀 앞에서 “이연택 재단이사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동문들은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재단이사들을 향해 “동창회를 갈라놓은 이연택은 물러가라!” “자격없는 이연택을 해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열기를 북돋았다.

이연택 재단이사 퇴진 요구 시위는 지난 5월27일 재단이사회를 시작으로 7월24일, 10월20일, 10월28일, 12월16일 제287회 이사회(사진) 등 매 회의 때마다 벌어졌으며, 일관된 구호와 피켓으로 총동창회의 의사를 강력히 전달했다.

“승소했다며 왜 항고까지 하나”

박종윤 측 억지 주장으로 통합 지연

법원 판결 자의적 해석… 동문사회 혼란 가중

◆ 권노갑 고문 등 고문단은 지난 11월12일 앰배서더호텔에서 긴급회합을 갖고 전일에 있었던 판결문에서 적시한대로 23대 회장을 역임한 원용선 고문이 동창회 회장임을 확인하고 12월16일 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선출해 줄 것을 요청.

다음날인 11월13일 권노갑, 이민휘 고문과 원용선 총동창회장은 회합 결과를 정리하여 전 동문에게 문자로 이를 알렸다.

그러나 박종윤 측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11월14일과 11월18일 2회에 걸쳐 동창회 사무처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하여 “이번 판결은 박 회장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송석환과 함께 움직여 온 원용선 전 회장이 회장직 무대행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판결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법률적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즉시 항고했다고 첨언했다.

이를 본 한 동문은 “승리했다면서 왜 비용을 들여 항고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비웃었다.

◆ 박종윤 측은 항고이유에 대해 “2006년 제정한 선거규칙이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규정이라는 데는 인정”하면서도 “23대 회장 이후는 모두 당선 무효라는 법정 판단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므로 26대 이연택 회장이 재임 중 주대위를 구성하여 박종윤을 선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주장은 이연택 전 회장이 재임 중 미납한 발전기금 5억원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종윤 측은 11월13일 기자 간담회 석상에서 “법원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수차강조했다. 한 법정에서 판결한 것을 놓고 자기 측에 유리하게 해석할 때는 “명판결”이라고 치켜세우고 23대 회장 이후 모든 회장 당선과 그들이 행한 행정행위 모두도 무효라는 판결부분에 대해서는 법 상식에 어긋난다고 항고해 헛갈린다는

반응들.

◆ 박종윤 측 문병호 동문은 권노갑 고문 등이 발송한 문자를 놓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말끝마다 인용했다. “총회를 열어 새 회장을 선출하라”는 권고가 사필귀정이라면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동문사회의 지적.

◆ 박종윤 동문은 지난 11월11일 일본으로 출국한 뒤 임덕규 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승복할 것이므로 고문단의 소송취하 요구는 의미 없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임덕규 고문의 전언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1월12일 소송 결과를 접한 후 박 동문은 일본에 머무르면서 임 고문에게 “저 친구(박종윤 측 측근)들이 항고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는 것. 박종윤 동문은 그들의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1차 소송결과에 따를 것임을 천명해 웃음에도 이를 번복한 것. 따라서 어느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들.

◆ 이에 앞서 박종윤 동문을 회장 추대에 동원했던 고문들은 지난 10월5일 회합을 갖고 양측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연말 비상총회에서 회장단을 재구성한다는 데 합의하고 서명을 받았으나 이연택, 김재기 동문은 서명을 기피하면서 11월10일과 11월12일의 고문단 회의에 불참하고 네팔, 제주도로 각각 여행.

◆ 지난 11월16일 박종윤 동문은 임덕규 고문에게 전화로 “이연택을 1년 회장 맡게 하고 본인과 송석환이 차기회장에 출마하지 않으면 항고를 취하할 수는 있으니 저쪽에 알아보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11월19일 아침 삼성병원에서 만난 Y동문에게는 “내가 1년 회장 하면 될텐데…”라고 말하는 걸 듣고 “아직도 회장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ROTC 종회 및 임관 30주년 기념식

200여명 참석 ... 예결산안 등 통과



정진우 신임회장

ROTC 종동문회 2014년도 정기총회 및 제22기 임관 30주년 기념행사가 1기인 본회 원용선 총동창회장

을 비롯 박정극 모교 학술부총장, 최용도 ROTC중앙회장, 김대성 112학군단장 등 내외귀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날 원용선 총동창회장은 “국가안보의 초석으로, 사회 각 분야의 개척자로 경제 성장과 민주 발전에 앞장서온 여러분의 자부심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지혜와 전통을 이어서 화합과 전진하는 자랑스러운 동창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진우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참여하는 동문회, 활발한 동문회, 함께하는 동문회, 재미있는 동문회를 목표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ROTC강령 낭독, 사업

결과 및 업무보고, 감사보고, 의안심의 및 의결, 공로패 수여, 총동문회기 이양, 윤관욱 21대 회장 이임사, 정진우 22대 신임회장 취임사, 축사, 임관 40주년(12기) 및 30주년(22기) 장학금 전달식, 윤재민 임관 30주년 행사 준비 위원장 인사, 이만수 30주년 기수회장 인사, 축하케이 커팅,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이학균(19기)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종회에서는 2014년도 결산승인, 제22대 회장 및 감사 인준,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5년도 임원 및 기별 연회비안 등 의결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2대 회장단

△회장=정진우(16기)

△감사=고재용(18기)

◆공로패 수여

△윤관욱(15기)=제21대 회장

△제15기 총동기회

△유호식(16기)=제21대 수석부회장

△이만수(22기) · 조충미 부부= 임관30주년 기수 회장

△윤재민(23기)=임관30주년 행사준비위원장

인천동문회 이환섭 회장 연임

참석자 중심으로 ‘회원 배가운동’ 결의



이환섭 회장

인천동문회 임시총회가 11월18일(화) 저녁 연수구 원인제역 앞 ‘우리가본집’ 음식점에서 있었다.

최종협 명예회장, 박오규(인천광역시 한국청소년축구협회장) 동문 등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종회에

서는 이환섭(71/75경행, 전 동인천경찰서장)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연임시키는 한편, 인천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참석회원을 중심으로 참여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날 정환민 본회 사무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가장 모범적 활동을 벌였던 인천동문회의 명성을 회복하여 동국발전의 한 축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최근 총동창회 내분사태의 재판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동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영남지역 동문 골프대회 성료

영남지역 동문 골프대회가 10월29일 경남 양산 동부산CC에서 경주, 대구, 부산, 울산, 포항, 마산 등 영남지역 동문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대회는 경남, 대구, 부산, 사회과학대학원, 직할경주, 행정대학원울산

동문회 등 총 6개 동문회가 매년 차례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부산동문회가 주관했다.

경기결과 우승은 이제곤(경제 64) 동문, 준우승은 장호석(의학 86) 동문, 메달리스트는 우정곤(사대원 43기) 동문이 차지했다.

동국가족 남산걷기대회 열리다

제4회 동국가족 남산걷기대회가 10월11일 오후 3시30분 모교 만해광장에 모여 식전행사를 가진 뒤, 남산 둘레길과 정상을 거쳐 모교로 되돌아오는 코스에서 열렸다.

총동창회는 이번 행사는 참가비로 받은 300만원을 건학 108주년 기념관

건립기금으로 전액 모교에 기부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상록원에서 모교에서 마련한 만찬행사를 통해 서로 즐기며 소통하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또 만찬장에서는 본회 정환민 사무총장의 수준급 섹소폰 연주로 동문들의 흥을 북돋았다.

영화 ‘명량’ 7백여명 단체관람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동문 초청 영화 “명량” 관람

총동창회 주최, 영화 ‘명량’ 단체관람 행사가 8월20일(수) 오전 9시30분부터 대한극장 2관과 11관 등 2곳에서 동문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관람한 ‘명량’은 국민배우 최민식(82/89연극영화)동문이 주인공 이순신역을 맡은데다 최다 관객 동원

세운 배우 최민식 동문과 감독 김한민(대학원 연극영화과) 동문을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시도되어 동문들의 뜨거운 감동을 이끌어 냈다.

총동창회는 이번행사에 “3백명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동문들의 반응이 뜨거워 최종 7백명으로 마감했다.

경영대학원 송년의 밤

경영전문대학원동창회(회장=이준호) 2014 송년의 밤 행사가 동문 및 재학생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2월2일 저녁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이인배 사무처장의 사회로 박사학위 취득과 각급 모임 공로자 등에 대한 축하 및 공로패 수여, 모의경영 사례 우수발표자에 대한 장학금 전달, 축사,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모의경영 사례 우수발표자에 대한 장학금은 도충락(MBA 5기), 도충률 등에게 수여됐다.

스 대표) 동문이 재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시키고자 5년간 매년 500만원씩 출연하기로 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시상했다.

축하 및 공로패는 박사학위를 받은 이의용 동문을 비롯 △여자동창회 전회장 장신영 △동경산악회장 김성래 △동경라이온스클럽 회장 문양수 △백상라이온스클럽 회장 강희동 △서초구 재선의원 김안숙 △안양시의원 김필녀 △대통령상 수상 리우식 동문들에게 수여됐다.

범농협 동우회 송년모임

범농협 동국대학교 총동문회(회장=이광석, 79/86회계) 송년모임이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4일 종각역 정난한식점에서 열렸다.

이광석 회장은 이날 인사에서 “모임을 자주 갖지 못해 회원들에게 미안하다”면서 “내년에는 상 · 하반기 모임과 지역별 모임, 회원 애경사를 꼭 챙기겠다”고 말했다.

본회 정환민 사무총장은 “한 대학,

한 직장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서로 소통하며 활기찬 동국인이 되어달라”면서 “총동창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동창회관 건립 등에 매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래 종로지점장, 박태선 남영동지점장, 김영석 경동심사센터장 등 참석 회원들은 각자 자기 소개와 함께 건배를 제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영문학부 70년사 출판기념회

역대 교수진 · 학술활동 등 소개



▲ 70년사 발간 자축모임에 참석한 동문들.

영어영문학부 70년사 출판기념회가 9월26일 모교 본관 로터스홀에서 허창식(75영문)동문회장을 비롯한 동문과 전·현직 교수, 학생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70년사는 영문과 출신인 신경림 시인의 축시를 비롯해 모교 소개, 영어영문학부 연보, 역대 교수진, 특별 및 동문 기고문, 학술활동 현황, 학생활동 현황, 동문회 조직 및 활동, 졸업생 명단 등으로 엮여져 있다.

이날 행사는 영문과 출신인 신경림 시인의 축시를 비롯해 모교 소개, 영어영문학부 연보, 역대 교수진, 특별 및 동문 기고문, 학술활동 현황, 학생활동 현황, 동문회 조직 및 활동, 졸업생 명단 등으로 엮여져 있다.

현(78영문) 동문 등의 주옥같은 축사가 이어졌다.

김영생(81영문)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허창식 회장은 “이제 지난 70여년을 차분히 돌아보고 밑거름 삼아 졸업동문은 학교를, 학교는 졸업한 동문을 이해하며 100년을 향해 정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총동창회 전영화(65경행) 수석부회장은 “각계에 훌륭한 동문들을 배출한 영어영문학부는 모교의 자랑이고 동창회의 큰 힘이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국발전에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의과대총동창회 발전기금 5억

의과대학총동창회(회장=장호석)는 11월16일 충주 임페리얼레이크CC에서 '제1회 의과대학 동문 골프대회'를 열고 경주캠퍼스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기금 5억원을 약정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총동창회는 올해부터 매년 5천만원씩 10년간 기부키로 했다.

장동창회장은 “모교와 학과의 발전, 그리고 훌륭한 후배 양성을 위해 동참하게 됐다”며 “이번 대회와 기금 약정을 통해 의과대학 동창회가 보다 더 유대 강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으면 한다”고 말했다.

84학번 체육대회 가져

84학번동기회(회장=오수환, 법학, 변호사) 제1회 체육대회가 지난 10월 18일(토) 오후 서울 자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남과 반가움으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한 동문 1백여명은 축구, 배구, 족구, 줄다리기 등의 친선경기를 가진 뒤 행운권 추첨, 장기자랑, 뒤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행라이온스장학금 지급



홍종표 회장

동행라이온스클럽(회장=홍종표)은 10월14일 후배들을 위한 지정장학금 1백만원을 본회 김환배 사업담당

부회장에게 전달해왔다.

동행라이온스클럽은 6월16일 홍종표 신임회장 취임을 계기로 조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월례회의를 통해 첫 사업으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11월19일에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사랑나눔행사를 갖고 2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증했다.

김삼철 동문 1억원 기탁



김 삼 철
(63/67농학,
서보실업(주)
대표이사) 동
문이 10월16
일 ‘바이오
관 건립기
금’ 1억원을 모교 김희옥 총장에게 전
달했다.

김동문은 그동안 모교에 2억7000여만원을 기부했다.

모교는 11월27일 준공하는 경기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 바이오관에 김동문의 이름을 딴 공간을 조성한다.

이정재 동문 장학금 1억원



영화 배우
이정재
(99/04연영)
동문이 8월
25일 모교 김
희옥 총장을
방문, 후배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모교는 이 기탁금을 ‘이정재 장학기금’으로 예치하여 연극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쓸 예정이다.

국문·문창학부 교수일동 제자 장학기금 전달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학부장=한만수) 교수들이 제자들을 위한 장학기금 2천4백만원을 모아 7월2일 김희옥 총장에게 전달했다.

컴퓨터공학과 장학금 4명에게 6백만원 지급

컴퓨터공학과동문회(회장=김승찬, 전산72)는 9월 29일 오후 5시 원흥관 1층 강당에서 제18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은 최승현(4학년) 이지영(3학년) 이성연(2학년) 박창선(2학년) 학생 등 4명에게 각각 150만원씩 총 6백만원을 전달했다.

컴퓨터공학과동문회는 컴퓨터공학과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 10월13일 컴퓨터공학과 장학회를 설립하였으며, 2006년 1학기에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한 이래 18회째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컴퓨터공학과 장학회는 매년 10만 원씩 기부하기로 약정한 장학회원 100여명이 장학기금을 출연해 후배 사랑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다.

여자동창회 2학기장학금 수여



여자동창회(회장=김영순, 화학 65, 동국대 명예교수)는 9월29일 오후 6시 모교 본관 로터스홀에서 2학기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후배들의 학업정진을 격려했다.

김회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이 장학금은 여자동창회 임원을 중심으로 십시일반 조성한 기금으로 후배사랑의 정성이 담겨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연극학부 3년 권세연, 전기전자공학과 3년 황미진양 등 2명에게 각각 1백원씩 지급됐다.

이 자리에는 공영대 모교 학사지원본부장과 조충미(교육81) 수석부회장, 김태현(불교84) 장학담당, 송경옥(연영84) 사무국장, 김보원(전산85) 교수 등이 함께 했다.

[알림] 본보 226호(2012.6.5일자) 제2면 ‘대학평가 결과를 보는 시각’에 대한 상임위원 긴급좌담회 기사 가운데 김영순 위원이 “교수 특채로 우수한 자원이 지원을 않는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진의가 와전돼 김 위원에게 누(累)가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편집자>

모교 랜드마크 ‘건학108주년기념관’ 건립 선포

송석환 동창회장 “총동창회관 건립에 총력 다하겠다”



▲ 최첨단 랜드마크 건물로 동국의 새로운 상징이 될 108주년 기념관 투시도. (동창회관·대형컨벤션홀·국제선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국발전의 시발점”… 종단·학교·동창회 뜻 모아

불교계-동문 등 6백명 참석

총동창회관이 들어설 최첨단 랜드마크 건물인 건학108주년기념관 건립 대역사가 마침내 선포되었다.

모교 ‘건학108주년 기념관 건립불사 선포 및 후원의 밤 행사’가 학교 및 동문, 불교계 등 각계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8일 저녁7시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송석환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에서 동창회관 건립기금으로 총동창회에서 1백억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모교 김희옥 총장에게 약정서를 전달했다.

이날 기부 약정된 금액은 건립 소요 비용 450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0억원으로 집계됐다. 약정은 불교계 원로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동문들의 자발적 참여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에서는 내년 5월 공사가 본격화되면 각 계각층으로 부터의 기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국대 랜드마크 건물로 세워져

송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우리 총동창회가 모교 교내에, 그것도 동국 108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빌딩안

에 동창회관을 갖게 되었다”면서 “동창회관은 앞으로 동문들의 단합과 소통 공간으로 모교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희옥 총장은 환영사에서 “건학 108주년 기념관 건립 불사는 한국 불교의 발전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동국발전이 곧 불교발전

학교법인 이사장 정련 스님은 식사를 통해 “동국대에 대중이 원력을 모아준다면 제2건학을 상징하는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건학108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 총동창회에서 모교에 동창회관 건립기금 100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초석이자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미래다”라며 “동문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 덕분에 제2건학의 꿈을 순조롭게 실현해 나가고 있다. 기념관 건립을 시작으로 불법홍포와 교육 불사를 통해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달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에서 “108주년 기념관은 동국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으며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며 “동국대의 발전은 곧 불교의 발전이고 동국대의 미래는 곧 불교의 미래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불사가 원만히 성취될 수 있기를 발원한다”고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정련스님을 비롯한 재단 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 호계원장 일면스님,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기홍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교에서는 정창근 경영부총장과 박정극 학사부총장, 이계영 경주캠퍼스 총장, 이진호 동국의료원장, 서울 캠퍼스 정각원장 법타스님 등 교수-직원 다수가 함께 했다.

우리 총동창회는 송석구 전 모교 총장, 박태권 전 충남 지사, 김진선 전 강원 지사와 전영화 수석부회장을 비롯 상임위원 다수, 국회의원 최재성 박원석, 연예인 이덕화 강석우 홍학표 소유진 동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기부자 명단

◇총동창회= 100억원

◇동문

▷송석환 총동창회장=2억1천6백만 원 ▷행정대학원 동문일동=12억8천 만원 ▷연극학부 동문일동=10억원 ▷불교대학원 동문일동=5억원 ▷전순표 세스코 회장=2억원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2억원 ↗

총동창회서 건립기금 100억원 조성하기로 행정대학원 · 연극영화학부 동문회 각 10억이상 약정



▲ 건학108주년기념관 건립 선포 및 후원의 밤 행사가 10월8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려 210억원을 모금했다.



송석환 회장
2억1천6백만원



전순표 동문
2억원



김진문 동문
2억원



박준형 동문
1억원



서정호 동문
1억원



송인모 동문
1억원



최상철 동문
1천80만원



심응석 동문
1천만원



이만수 · 조충미
1천만원



최석권 · 김태현
1천만원



연극영화학부 동문회
10억원

▶ 박준형 신라교역 회장=1억원
▶ 서정호 앰배서더호텔그룹 회장=1억원
▶ 경찰행정학과 총동문회=1억원
▶ 송인모 영인기술 대표=1억원
▶ 최상철 파인글로벌 회장=1천80만원
▶ 심응석 상임부회장=1천만원
▶ 이만수 · 조충미 동문부부=1천만원
▶ 최석권 · 김태현 동문부부=1천만원

◇ 불교계

▶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금일봉
▶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금일봉
▶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3억원

▶ 수불스님(범어사 주지)=20억원
▶ 정각원(원장 법타스님)=15억원
▶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스님=3억원
▶ 동국대 교직원 일동=3억원
▶ 김희옥 총장=1억원
▶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1억원
▶ 불국사 회주 성타스님=1억원
▶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1억원
▶ 구룡사 회주 정우스님=1억원
▶ 영일암 현응스님=1억원
▶ 성불사 학명스님=1억원
▶ 이기홍 조계종중앙신도회장=1억원
▶ 태관스님=3천만원
▶ 종민스님=1천만원
▶ 불교대학원 정승석 교수=1천만원
▶ 김동건 불교포럼회장=1천만원

국제선센터 · 컨퍼런스홀 · 동창회관 등 지상 4층 연면적 2만7088m² 규모로

'건학 108주년 기념관'은 연면적 2만7088m²(8194평)로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5월에 착공, 2017년말 완공예정이다. 기념관은 뉴브랜딩(NEW BRANDING), 불교 · 전통문화, 동문 공간 등 크게 3가지 테마를 갖고 조성된다.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회

의장과 국제선센터, 동문 출신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동국 스타 광장', 불교박물관, 총동창회관 등이 들어선다.

디자인은 불교와 동국대를 연상시키는 숫자 108을 상징하는 기둥 108개를 국제선센터 하부에 세운다.

추대위원회 “송석환 · 류수택 회장후보 자격 있다”

절차 지킨 송석환 등록 거부… 특정인 선임 저의 드러내

동국대 총동창회 법통 다툼에서 지난 11월11일 “재판부로부터 송석환 · 박종윤 측 모두 회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송석환 동문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승복했다. 반면에 박종윤 동문은 불복, 항고했다. 총동창회는 법원 결정에 따라 총회를 열어 신임 동창회장을 뽑고 화해와 단합속에서 동창회 정상화를 꾀하려 했지만 박 동문측은 여전히 모함과 음해성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좌담회는 법원 판결이 나기전인 지난 11월10일 가졌지만 법원 판결이 난 마당에 상처를 씻고 단합한다는 취지에서 좌담기사를 신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기만에 찬 모략과 흑색선전이 거듭돼 그들의 불법성을 묵인해선 안된다는 차원에서 좌담기사를 그대로 신는다. 재판결과 이후 동창회 상황이 급속히 바뀌고 있고, 시의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진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그간의 과정을 정리한다. <편집자>

△사회자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가 2개로 갈라져 있다. 이를 보고 많은 동문들이 안타까움을 넘어 이게 무슨 추태냐며 화를 내는 분도 계신다. 그래서 사건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통합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보고 오늘 좌담을 갖게 됐다. 지난 3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제27대 총동창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사실상 총동창회가 한 지붕 두가족 형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회 이계홍 동문

또 서로 “누가 총동창회 정통인가”를 두고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는데 오해가 없도록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이는 여론전과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동문들이 사태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돋는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진실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차원에서 有不利를 떠나 사안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임원 입후보자 등록없어 추대위원회 구성

△정환민 : 총동창회 양분의 진실을 알게 되면 쉽게 오해가 풀릴 것이다. 큰 불출기가 왜 송석환 회장이 이끄는 총동창회로 모아지고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동창회는 회칙에 의해 운영된다.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이재형 동문



전영화 동문



정환민 동문

회원들의 합의사항으로 동창회 내부적으로 보면 사회법보다 더 구속력이 있다. 27대 회장 선출과정은 회칙과 선거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선거 규정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구성되어 2013년 9월30일 ‘제27대 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동창회보 230호,

거론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추대위원, 또는 간사인 사무총장이 직접 (회장 후보를)방문하거나 전화로 수락 의사를 타진했으나 모두 사양했다. “준비가 안되어 있다” “발전기금 출연 여력이 없다” “자격이 안된다” “좀 더 훌륭한 동문을 구하라” 등이 사양 이

회장후보로 12명 추천 ‘의사 타진’

“총회서 선출했으면 문제 없었다”

2013.10.10일 발행)를 했다. 그러나 입후보자가 없었다. 그래서 추대위원회가 구성됐다. 추대위원회 첫 상견례를 주재한 송석환 수석부회장은 김동정 고문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회의장에서 나와 1차 회의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동국의 미래를 위해 훌륭하신 분을 총동창회장으로 추대해주시길 당부한다”며 저녁만찬까지 주재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유였다.

송석환 회장 기탁금 거절 “음모없이 있을 수 없다”

3차 회의에서 송석환 수석부회장은 “모교 발전과 동문의 단합을 위한 설득과 화합의 정신이 고양된다면 회장직을 맡겠다”는 조건부 수락 의지가 있음이 보고됐다. 4차 회의때는 김동정 추대위원장이 나에게 “송석환 수석이 추대된다면 분명히 한다고 했느냐”고 물어 “틀림없다”고 답변했다. 그 내용은 회의록에도 나와 있다. 그런 가운데 5차 회의때 류수택 동문의 ‘회장 후보수락서’가 보고됐다. 나는 “추대위원회에서 공식 추천도 안했는데 어떻게 수락서가 나왔느냐”고 간사에게 물었다. 그리고 “(후보)등록시 필요한 발전기금 1억원과 나머지 5억

총동창회 현안 긴급좌담회

● 참석자

이재형 (64/68불교)

전영화 (65/69경행)

정환민 (65/69농학)

김오현 (76/80체교)

조충미 (81/85교육)

송인모 (83/90경행)

● 사회 : 이계홍 (65/69국문)

● 일시 : 11월 10일 (월) 오후 6시

● 장소 : 총동창회 회의실

원에 대한 기부약정서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간사가 답변을 회피했다. 5차 회의때 나는 ”이 시점에서 관례상으로 보니 그동안 총동창회에 봉사해온 공적으로 보니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송석환 수석이 총동창회장으로 가는 것이 미덕이다“고 제안하고 송석환 수석부회장의 총동창회장 추대 승낙서를 접수시켰다. 이를 뒤 선거규칙 제8조(후보자 자격요건)에 따른 기탁금 1억원까지 사무처에 접수시켰다. 그런데 간사가 김동정 추대위원장과 통화하더니 ”기탁금을 지금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는 사전에 어떤 음모가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의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그래도 6차 회의에서는 김동정 위원장이 후보 검증은 두 분(송석환, 류수택) 모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곧 총회에서 두 사람중 한 사람을 선출하겠다는 의미다.

‘류수택 · 송석환’ 단일화 위해 단식투쟁

△김오현 : 나도 추대위원 중 한 사람으로 총동창회의 아름다운 소통과 대통합을 위해서는 두 선후배간의 경쟁보다는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 중재역할을 자청했다. 6차 회의가 끝나고 두 선배님(송석환, 류수택)을 만나 후배들의 충정도 말씀드리고 하나님 된 총동창회를 위해 두분 중 한분이 양보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다. 하지만 답이 나오질 않았다.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단일화를 ↗

△이재형 : 나는 제27대 회장 추대 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실적 관계를 잘 안다. 추대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2013년 11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차례 회의를 가졌다. 1, 2차 회의과정에서 회장 후보로 송석환, 박종윤, 류수택 동문을 포함해 1차 5명, 2차 7명 등 12명이

고문단 오찬장 불러 “박종윤 회장 추대하자”

회장 선출된 것처럼 곧바로 언론에 흘려 망신살 자초

위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많은 동문들이 찾아와 지지와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8차 회의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장추대 건은 미궁에 빠진 것이다. 추대위원회가 다소 무력해있긴 했지만 해체된 것은 아니었다.

고문단 위상 안맞는 ‘추대위원회’로 비난 목소리

△전영화 : 박종윤 동문을 회장으로 추대하게 된 배경은 양상이 전혀 다르다. 이연택 전임 회장은 금년 2월5일 오찬이나 하자면서 일부 고문들을 신라호텔 중식당으로 불러 ‘회장 후보 추대위원회’라 칭하고 “1~8차까지 추대위원회를 열었으나 동창회장을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 박종윤 동문을 동창회장으로 추대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대다수 고문들은 이런 안건이 나오는 줄도 몰랐다는 전언이다. 또 4, 50년대 80세 고문들이 갑자기 회장후보 추대위원이 됐다. 총동창회 회칙에도 없는 고문단 추대위원회란 것도 금시초문이다. 굳이 말한다면 자문역인데 회장선출 권리까지 행사한 셈이다. 한마디로 회칙을 벗어난 회장의 독단과 전횡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놓고도 이연택 전임회장은 이를 숨긴채 5일뒤인 2월10일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후임 총동창회장 선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택 전임회장의 이중적 태도가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사회 · 총회없이 ‘박종윤 회장’ 선출 보도 논란

△사회자 :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보나.

△송인모 : 들어보니 이연택 회장의 독단과 숨은 의도가 총동창회 양분을 자초했다고 보여진다. 합의가 안되면 총회에서 동문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이연택 회장이 특정인을 배제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후임회장으로 앉히려다 보니 이런 무리수가 나왔다고 판단된다.

△전영화 : 2월10일 상임위원회에서 나를 비롯해 홍파스님, 법타스님,

이재형, 박태권, 김진억, 김오현 등 대다수 위원들은 “회장 선출은 두 분(송석환, 류수택)이 경합하고 있으니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총회에서 뽑아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알았다”면서 결론없이 산회했다. 이 상임위원회는 이 회장이 의도한대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순일 뿐이었다. 그리고는 다음날인 2월11일, 고문

만만치 않은데 동창회 경비로 지출 했다. 마치 동창회비를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해도 괜찮은지 묻고싶다.

△사회자 : 그렇다면 적법성을 거쳤느냐, 안거쳤느냐의 문제가 제기되는 데....

△김오현 : 지금까지의 과정은 모두

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발전기금 미납 행위는 공유재산 손실가져와

△이재형 : 6억원 발전기금 문제는 할 말이 많다. 이연택 전임회장 연임 때는 발전기금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황당하다. 24대 전순표 회장이 발전기금을 조정하여 25대 회장에 연임하려 했으나 이연택 측에 의해 거부된 선례가 엄연히 있다. 6차 추대위원회 회의중 이연택 전임회장의 2기 발전기금 납부여부를 확인했더니 박용재 당시 사무총장은 “2억원이 납부되었다”고 보고하여 알게되었다.

이후 사무처는 정기 감사에 대비해 이연택 전임회장 발전기금 미납분 5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째맞추기 위해 동문들의 임원회비, 연회비, 골프행사 협찬금까지 짖어 모으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동창회로서는 그만큼(5억원) 재산 손실을 가져온 셈이다.

회장 선출 총회… 송석환 1,200명 - 박종윤 120명 참석

△정환민 :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3월 5일자로 이제곤, 이홍섭 두 감사가 회칙 14조(임원의 직무) 4항에 의거, ‘2013 회계연도 총동창회 업무 및 회계 감사’를 한 결과 제26대 총동창회장이 발전기금 미납으로 당선 무효인 만큼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도록 빠른 시일내 상임이사회 등 관련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송석환 수석부회장은 회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가동시켜 후보 등록, 총회 일자 등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기총회가 열리는 3월25일 까지는 많은 난관이 따랐다. 3월10일 박용재 사무총장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업무서류, 통장 및 인감 등을 가지고 야반도주해 버렸다. 사무처 직원들을 해임시키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상벌위원회’라고 사칭하며 총회에서 선출한 감사와 송석환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사무처 직원들을 제명했다고 통보했다.



김오현 동문



조충미 동문



송인모 동문

들과 박종윤을 불러 놓고 “회장으로 추대한다”면서 인사까지 시켰다. 추대위에서 엄연히 2명의 후보자가 경합하고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총회의 경선을 건의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한채 송석환 수석부회장의 회장 선임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해 행

회칙에 반하는 이연택 전임 회장의 불법적인 행동이었다. 회장 선출방법이 적법했느냐와는 별개로 이연택 전임 회장이 회칙을 준수했느냐가 문제다. 발전기금 문제는 이연택 회장 1기(25대)때에는 정상영 KCC회장(총동창회 고문)이 회장 발전기금 6억원을 대납

회장 미리 정한뒤 상임위 들러리로

“이연택 발전기금 미납 자격 상실”

위였다. 이 내용을 이사회와 총회도 거치지 않고 2월20일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등에 총동창회장으로 선임된 것처럼 보도의뢰해 논란을 자초했다.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신라호텔 중식당 ‘팔선’이나 2월11일 모임 장소인 청담동의 ‘더반 프라임 하우스’ 최고급 음식점으로 식대가

해 이의가 없었으나 “2기(26대)때에는 1억만 내고 나머지 5억을 미납해 회장 자격 상실에 해당된다”고 감사가 지적했다. 그래서 지난 3월11일 열린 긴급 상임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송석환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도록 의결한 뒤 기존의 선거 관리위원회를 가동하여 정기이사회



▲ 지난 3월25일 정기총회에서 동문들은 이미 송석환 회장을 선택했다.

〈다음면에 계속〉

“자네는 안돼. 박종윤 안하면 제3자 내세울거야”

이연택 “송석환은 종단·재단·학교와 못 싸운다”고 매도

〈앞면에서 이어짐〉

종로경찰서에는 ‘업무방해’라며 동문 12명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총회 하루 전인 3월24일에는 괴청년 20명을 인사동 총동창회 사무실에 난입시켜 3일간 업무를 마비시켰다.

3월20일을 전후해서는 각종 모략과 흑색선전 문자 37건을 발송하고 텔레마케팅 아줌마를 동원해 자신들의 총회 참석을 강요했다. 그럼에도 같은 날, 같은 시간 송석환 회장직무대행이 개최한 앰배서더 총회에는 1천2백여 명의 동문이, 박종윤 동문을 선출하는 세종문화회관에는 120여명이 참석해 크게 대비됐다.

박종윤 동문, 총회 이틀전까지도 “나 대신 후배가 잘해달라” 당부

△이재형 : 회장 선출과정에서 박종윤 동문은 “그동안 총동창회에 헌신한 공로로 보나, 관례로 보나 수석부회장이 총동창회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사양해왔다. 박종윤 동문 스스로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한 것 만해도 10차례 이상 이었다. 본인의 결단력이 없었던지, 배후 조종자에 의해 번복을 거듭 했는지는 모르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처신이다. 3월23일 총회를 이를 앞두고서도 박종윤은 송석환을 대전으로 불러 “나는 안나갈테니 후배가 잘해달라”고까지 말했다. 이날 상경 도중 송석환은 박종윤으로부터 “롯데호텔에 가서 이연택 회장을 만나라”는 연락을 받고 자정무렵 롯데호텔로 나갔다. 임덕규 고문이 배석한 그 자리에서 이 회장은 송석환에게 “자네는 안돼. 박종윤이 안한다면 제3자를 내세우겠다”고 면전박대했다.

박 동문은 3월25일 총회 임박해서까지 짧은 후배들에게 수차례 포기의사를 밝혔는데 강권을 뜻이겼던건지 세종문화회관에 나가 회장으로 추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자 : 이연택 전임회장은 왜 송석환 수석부회장이 적임이 아니라 고 외면했나. 따지고 보면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의 유고나 질병, 장기 해외순방 때는 회장직무를 대행하면서 회장직을 훈련받아 관례

적으로 후임 회장이 되는 것인데, 전임 회장이 한사코 수석부회장의 회장직 승계를 반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송인모 : 이연택 전임 회장은 ‘송석환 회장 불가’의 표면적 이유로 “재단이나 종단, 학교와 싸우는데 리더로서 약하다”고 해왔다. 내가 아는 송 회장님은 업무 방식이 다를 뿐이지 “약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나도 기

석환 회장은 ‘동창회관’ 하나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약했고 실천하는 중이었다. 박종윤 측이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송석환 회장은 “그 소송비용이면 후배 장학금을 주던지, 동창회관 건립기금으로 보태야 한다”면서 법정으로 가는것을 만류했다. 그러나 박종윤 측은 일방적으로 법정싸움을 걸어 사안을 왜곡하고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았다.

△전영화 : 박종윤 선배측이 김희옥 총장을 모함하는 것은 이연택 동문이 지난 2011년 총장 선출에서 떨어진데 대한 사적 감정과 그의 측근인 연기영 교수가 이번 총장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이란건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동창회관 건립문제가 표류하게 될까 걱정이다. 송 회장만이 100억원의 건립비를 마련할 수 있는데…

모교와 총장까지 비난해 무얼 얻겠다는 건지 이해 안가

△조충미 : 모교 발전에 대한 생각과 방법은 서로가 다를 수 있지만 동창회는 후배 장학금 지급과 취업 알선, 모교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일 것이다. 모교의 발전이 동문의 자긍심에 직결되기 때문에 동문과 모교는 일심동체다. 때문에 동창회가 일 잘하는 김희옥 총장을 후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두고 김희옥 총장을 4無 총장이라며 비난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모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배교행위로 규탄 받아야 한다.



▲ 각 학과·학번별로 골고루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

박종윤 동문, 수차례 사임 번복해… 동창회장 문제 법원 소송 처음 있어

업을 창업했지만, 송 회장님은 맨손으로 기업을 세워 30여년간 6개기업으로 확장하여 성장시킨 성공한 중견 기업인인데 리더십이 없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는다. 특히 재단과 학교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하면서 견제도 하는 상호보완 관계로 궁극적으로 학교를 후원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자 : 회장 선출과정은 어느 정도 이야기된 것 같다. 다음은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으로까지 사태가 진전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

법정다툼은 상황만 어렵게 만들고 서로 도움 안돼

△김오현 : 동문사회에서 ‘회장’ 자리를 놓고 법적 판단을 묻는다는 자체가 웃음거리다. 돈과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봉사직일 뿐이다. 더구나 6억원씩이나 기부한다. 송

송석환 회장 “소송비용으로 장학금이나 회관기금 보태야”

△정환민 : 박종윤 측은 송석환 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월2일 “직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법정싸움이 시작되었다. 소장에서 그는 가짜 회장인 송석환이 진짜 회장인 박종윤의 동창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니 이를 저지해 달라는 요지였다. 박종윤 측은 동창회의 기본업무는 제껴둔채 오직 소송에만 매달렸다. 법정공방 6개월9일 동안 박종윤은 준비서면(변론자료) 21건을 법정에 제출했다(송석환은 9건). 고문단에서 11월10일까지 소를 취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11월7일 변론자료 2건을 제출하기도 했다. 부족했다고 느꼈던지 대필한 서명의 타원서와 김희옥 총장을 규탄하는 서류까지 만들어 법정에 제출하는 비인간적 행태를 보였다.

△사회자 :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운영도 심각한 것으로 들킬다. 동국장학회 이사장은 총동창회장이 당연직인데, 이연택 전임회장은 재임시 이사를 선임하여 정상화시켜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총 15명 이사 중 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임기가 모두 끝난 후에야 회의를 소집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데…

동국장학회를 몇몇이 좌지우지… 기금 출연자 중심돼야

△조충미 : 장학회는 장학금 지급 등이 주 사업이다. 장학금을 많이 모아야하고, 그 운영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내가 알기로 종전의 장학회 이사들은 대부분 장학금을 출연하신 분들이다. 또 동창회가 내분중이라해도 임기 만료전 후임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절반 이상의 임원이 지난 7월 임기 만료되는데도 일언반구도 없다가 느닷없이 8월30일 남은 이사 7명을 대상으로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날 성원미달(이연택, 김동정, 이인정 이사만 참석)로 무산되자 이후 몸이 불편한 이두철 이사를 특

고문단 추대회의록 위조... 회비납부자 가짜 동원

진실 · 적법 주장하더니 “어떻게 믿고 동창회 살림 맡기나”

→ 별 면회하여 이사직 사임을 요구(정족수를 맞추려 재적이사 인원을 줄이기 위함)한데 이어 전순표 이사까지 사임시켜 남은 5명중 3명이 참석했던 것 같다. 17명의 장학회 임원(감사포함)이 고작 3명에 의해 좌지우지된 셈이다. 그나마 3명의 이사 가운데 1천만원 이상 장학금을 출연한 이사는 1명이고, 이연택 이사장은 한푼도 출연한 적이 없다니 한심하다. 새로 선임했다는 13명의 이사와 감사도 장학금을 출연할 사람이 있을지 장학회 미래도 암울하다.

△사회자 : 4차에 걸쳐 이연택 재단 이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넘어가자.

피켓 시위는 동창회로 재단이사직 정상적 승계 차원

△전영화 : 본회 회칙 제34조에는 재단 파송임원은 상임위원회와 이사회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연택 이사가 동창회장 자격으로 재단에 파송된 것은 동문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12년 1월 경 재단 관계자로부터 이사직을 제안 받은 동문은 송석환 당시 수석부회장이었다. 그 당시 송 수석부회장은 동창회의 위상을 위해 수락하지 않고 이연택 회장에게 양보했다. 이 문제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연택 회장은 “송석환 수석의 살신성인 정신에 감사한다”고 치하였다. 이어서 “재단이사가 동창회 뜻이니 회장 임기가 끝나면 바로 이사직을 그만두고 인계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그래놓고는 지금까지 이사직을 불들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낯 두꺼운 분이다”고 느꼈다. 이 때문에 4.19세대와 70·80년대 학번 등 50여명의 동문들이 계속 피켓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참여 동문들의 숭고한 뜻이 감동적일 뿐이다.

△사회자 : 다음은 2차에 걸쳐 박종윤 고문족이 제작한 동창회보를 두고 서도 말이 많은 것 같다. 이 부분도 동창회 내부 상황을 잘 모르는 동문들을 위해 정리해보았으면 한다.

△정환민 : 정상적인 동창회보라기

보다는 선전 선동물로 보인다. 자칭 제231호의 경우,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도배했다. 법정에 제출한 변론자료를 찌라시로 만들어 배포하는 몰상식이었다. 모순과 오류 투성이이다.

역대 회장 이름도 몰라… 도덕성 말할 자격도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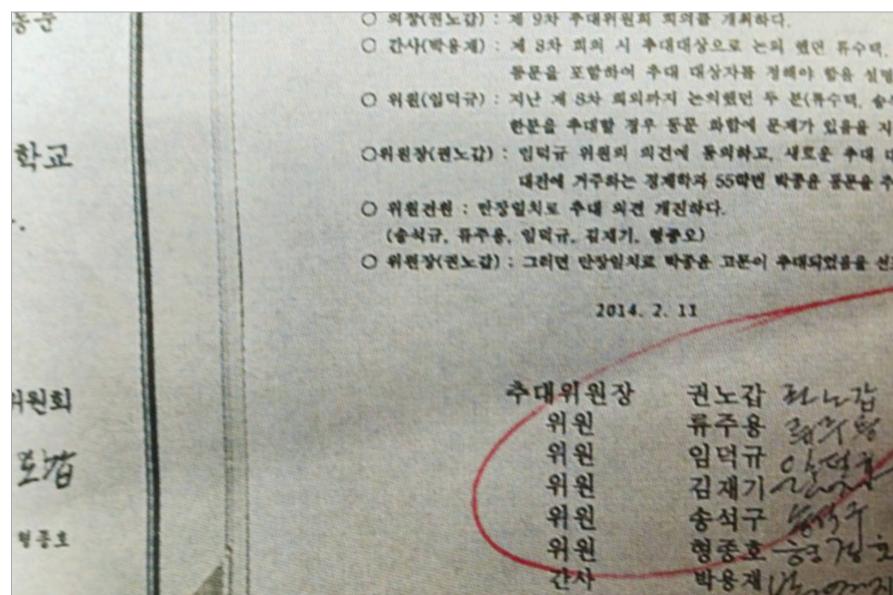
이 회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

비정상적으로 지출된 경비는 엄중히 책임 물어야

△송인모 : 이번 기회에 2013 회계년도 결산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33차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9,500여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세종문화회관 행사비, 경비용역동원비, 문자메시지 발송비, 호텔 회의비 등으로 탕진

전년도 이월금 존재 여부 밝혀야

갈길 바쁜 정상화… 사욕이 걸림돌



▲ 指鹿爲馬—추대위원 이름 · 서명까지 위조한 회의록을 자칭 ‘회보’에 버젓이 실고도 ‘진실 운운’ 할 수 있을까(?)

27대 총동창회 임원 추대위원회 회의록’ 컷사진에 전임 회장 ‘류주형’이라는 이름도 몰라 ‘유주용’으로 표기하고서는 ‘유주용’으로 대리 서명까지 한다음 버젓이 공개한 것을 보면서 놀랬다. 그렇게 회의록을 조작하고서도 도덕성 · 정당성 운운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또 자칭 제232호 회보는 김희옥 총장 읍해로 도배질해 법정에 제출했다. 모교 교직원은 물론이고 많은 동문들이 왜 동창회 다툼에 모교

총장까지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비등했다. 특히 회비납부자라며 사진까지 크게 실린 K모, S모, J모 등 여러 명의 동문들은 본인도 모르게 회비납부자로 둔갑되었다고 항의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해프닝까지 했었었다고 한다. 열세를 만회하려는 고육책이라고는 해도 이제는 동문들 눈속임수까지 동원하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비정상적으로 지출된 경비는 바로 변상하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종윤 선배 만났을때 “동창회장 안하겠다”고 수차 말해

△사회자 : 이야기를 모두 하다보면 끝이 없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동창회 향방을 짚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자.

△조충미 : 동창회가 양분된 비극은 매우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일이다. 동문사회가 더 이상 분열되어서는 안된다. 한시라도 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25만 동문들의 진정한 바람이라고 본다.

나는 지난 3월 총회전에 뜻을 같아하는 동문 4명과 함께 대전으로 내려가 박종윤 선배를 직접 만나뵌 적이 있다. 이날 박종윤 선배님과는 함께

노래방까지 갈 정도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윤 선배님은 “나는 동창회장 안하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다. 그래서 “역시 훌륭하시고 생각이 깊은 선배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까지 온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박종윤 선배님이 그동안의 동창회 사정을 잘 모르시고 아마 주변 몇몇 동문에 의해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았나 판단된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박종윤 선배님이 미동에서 깨어나시어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깔끔하게 주변정리를 하실 것이라고.

“언제 동창회가 정상화 되느냐”며 동문들 지친 상태

△정환민 : 동창회 업무의 실무책임자로서 느끼는 작금의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동창회 양분사태로 인해 동문들의 관심이 무뎌지고 회비 납부도 기피하고 있다. “언제 동창회가 정상화 될 같으냐? 통합이 어렵다면 합동 총회라도 열어 회장을 다시 뽑아라” “동창회가 학교발전의 걸림돌이 되어는 안된다” 등의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또 어떤 동문은 “법원의, 법원에 의한, 법원을 위한 동창회로 전락해 버렸다”고 분개했다. 이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동문들의 숙원사업인 동창회관 건립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동창회관은 내년 4, 5월에 착공되는 모교 108주년기념관에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건축비로 100억원을 조성하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동창회관 건립은 물건너간다.

동창회 힘은 동문에게서 나온다… 법보다 화합이 우선

이 다툼속에 과연 누가 나서서 기금 조성에 앞장서고, 무슨 신바람으로 동참하겠는가. 단연컨대 그 역사적 소임은 송석환 회장이라면 몰라도 해낼 동문이 없다. 동창회의 힘은 동문에게서 나온다. 생각같아서는 이번 분규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동문을 비롯해서 동창회 정서보다 법에 매달려 동문사회를 어지럽히는 동문들을 발본색원해서 격리시켰으면 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홍익태 동문



홍익태(78/85경행) 동문이 11월 19일 신설된 해양경비안전본부 초대 본부장에 취임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옛 해양경찰청을 재편해 출범한 조직으로 전국에 5개 지방본부, 17개 해양경비안전서 등을 두고 해양

안전관리, 해양경비, 오염방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해경안전본부는 청사를 당분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전 해양경찰청 본청을 사용한다.

인천경찰청 차장, 경찰청 교통 관리관, 생활안전국장, 전북경찰청장, 경무인사기획관을 지냈다.

올해 9월1일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며 경찰청 차장이 됐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격으로 친화력이 좋고 경무와 기획, 외사, 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섭렵 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조광래 동문



조광래(78/82전자)동문이 10월 15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시이사회에서 신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으로 선출됐다.

1988년 천문우주과학연구소에 입사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공 우주연구소 설립에 따라 소속변경) 중형로켓개발 그룹장, 액체로

켓(KSR-III) 사업단장, 우주발사체 사업단장, 발사체 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계분야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국방연구개발 전문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우주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 동문은 학부는 물론 석사와 박사 학위를 모두 모교에서 취득했다. 2013년 3월 본회 정기총회에서는 국내 최초 우주선 발사 성공을 이끈 나라호 우주발사 추진 단장으로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받았다.

회고록 ‘順命’ 출판기념회



권노갑(49/53경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본회 고문) 동문은 11월3일 자신의 회고록 ‘順命’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와 정치 역정 등 자신에게 쏠렸던 각종 의혹과 주변 정치인들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대상



전순표(53/57농학, (주)세스코 회장, 본회 고문)동문은 8월 27일 ‘경제풍월’ 창간 15주년기념식에서 제5회 한국의 기업가정신 대상을 받았다.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에



송석구(58/62철학, 전 동국대 총장, 본회 고문)동문은 7월28일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 재단은 2006년 말 삼성이 사회에 환원한 기금으로 설립되었다.

‘순천문학상’ 수상



윤형두(55/63법학, (주)범우사 회장)동문이 순천문학동우회(회장 김수자)가 주최 한 제11회 ‘순천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0월2일 ‘순천해피락’에서 있었다.

‘민립 김상훈 문학관’ 개관식



김상훈(55/59국문, 퇴계학부산연구원장, 전 부산일보 사장)동문은 11월5일 김천에서 ‘민립 김상훈문학관’ 개관식을 가졌다.

제1회 심훈문학대상 수상



조정래(62/66국문, 소설가)동문이 9월20일 올해 제정된 제1회 심훈문학대상을 수상했다.

대하소설〈태백산맥〉〈아리랑〉과 지난해 펴낸 장편 〈정글만리〉등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줄기찬 통찰력을 보여준 공로다.

**총동창회 새 홈페이지
<http://dongguk.info>**

관음종 개산조 탑비부도 제막식



홍파스님(63/67불교,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은 11월1일 순천 선암사에서 대한불교관음종 개산조인 태허 홍선조사스님 열반 35주년기념 탑비 부도 제막식을 봉행했다.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일면스님(75/79승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은 10월11일 남양주시 불암사에서 ‘불암사와 함께하는 생명나눔 음악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미국 OC 북부한인회장 취임



김경재(65/69농학, 코요테 힐스 골프 클럽 대표)동문은 7월9일 미국 OC(오렌지 카운티) 북부한인회 회장에 취임했다. 동국대 미주총동문회장, 남가주 호남향우회장 등을 맡고 있다.

한국시인협회 회장 취임



문정희(66/70국문, 동국대 석좌교수)동문은 9월4일 사단법인 한국시인협회 제4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제1회 현대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스웨덴 시카다상 등 국내외 유수의 문학상을 받았다.

불교여성개발원장 취임



박순(66/68불교, 전 동국대 사범대 부속 여고 교장)동문이 지난 10월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8대 ‘불교여성개발원’ 원장과 제5대 지혜로운 여성’ 이사장에 선임됐다. 취임식은 11월27일.

아미건호텔 건축허가 자축



김오현(76/80체교, (주)보경그룹 회장, 본회 상임부회장)동문은 9월12일 종로5가 아미건관광호텔 신축부지에서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큰스님을 모시고 아미건관광호텔 건축허가 취득 및 광장문화관광시장 지정을 자축하는 기원제를 올렸다.

혁신선도 중견기업상



한우삼 동문(63/69농학, 태양금속 공업주 회장)이 12월8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선도 중견기업 시상식에서 2014 대한민국 혁신선도 중견기업상 '장수기업부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중견기업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하고 있다.

'장수기업부문상'을 수상한 한 동문은 태양금속공업이 60주년을 맞는 명문장수기업으로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대표적 중견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한국의 최고경영인상



김진문(64/71경영, 신성약품 회장) 동문이 12월2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14 한국의 최고경영인상 '고객만족경영부문상'을 수상했다.

1985년 신성약품을 창업해 '무신 불립(無信不立)'을 기업모토로 30년 간 의약품 유통업계를 선도해 왔다. 2000년 수도권 의약품도매업 매출액 1위를 달성한 신성약품은 2008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지난해 7월에는 김포고촌 물류단지 내에 대지 3197㎡(약 967평), 지상 2층 규모의 물류센터를 완공하며 의약품유통업의 현대화·대형화, 그리고 유통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홍순직(66/71경영)동문이 12월17일 한국생산성본부 15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홍 동문은 산업자원부 시절 부이사관을 거쳐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삼성자동차 전무, 삼성SDI 부사장 겸 삼성미래전략위원회 부사장 등 14년간 삼성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왔으며, 전주비전대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생산성본부는 이사회가 민·관·학계를 두루 거친 홍 동문의 경험과 역량을 생산성본부 수장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12월 22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

대한민국 금융대상



김정남(72/76행정, 동부화재 사장) 동문이 12월1일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금융대상 시상식에서 '손해보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동문은 지난 3월 동부화재 고유서비스 가치(SI)로 '행복약속365'를 선포했다. 1년 365일 늘 소비자 행복을 위해 뛰겠다는 의미다. "2010년부터 내걸린 '다이내믹 동부'라는 슬로건 아래 소비자와의 약속 항목 6가지, 그리고 항목별 실천지침 6가지를 정했다"며 "동부화재는 올 한 해 소비자 서비스 스탠더드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고위간부 인사 대거 승진



이상원 경찰청 차장



구은수 서울청장



윤종기 인천청장



김종양 경기청장

이와함께 치안감인 최현락(99/02대학원)동문은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정해룡(78/82경행)동문은 강원지방경찰청장으로, 윤철규(78/82경행)동문은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이에 앞서 강성복(77/84경행), 허영범(79/85경행) 등 두 동문이 9월1일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강 동문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으로 발령받았다.. 또 허동문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에서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영전했다.

한편 이상로(82/89경행,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동문은 12월17일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안았다.



강성복 경기1차장



허영범 보안국장



윤철규 충북청장



정해룡 강원청장



최현락 기획조정관



조현배 정보국장



박경민 경찰학교장



이상로 경무관

▲이종범(72/79전산, (주)신우 대표이사)=9월초 의왕상공회의소 제4대 회장에 취임

▲김영준(79/84공경)=7월30일 제32대 전주보훈지청장에 취임

▲이창환(80/88무역, 인천시 연수구 의회 의원)=7월초 7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

▲문주철(81/85회계)=8월14일 IBK 캐피탈 부사장 취임

▲이기재(86/94토목)=제주특별자치도 신임 서울본부장에 취임

▲김태백(84/88경제)=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취임

▲오동석(87/94회계)=8월27일 새누리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부임

▲장만희(88/89행원)=세종시 안전행정복지국장 영전

▲이용훈(72/77농생)=7월 청양훈요양병원 장례식장 개업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



이정현 의원



박광온 의원

이정현(78/85정외)동문과 박광온(00언론대학원) 동문이 지난 7월30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각각 당선됐다.

이정현 … 순천·곡성 선거구

새누리당 소속의 이정현 동문은 7월30일 고향인 전남 순천 곡성에서 '야당의 텃밭'이라는 새정치연

합의 서갑원 후보를 득표율 49.4% 대 40.4%로 여유있게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당선으로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여야 거대 양당체제의 파괴라는 혁명적 계기를 마련했다.

박광온 … 수원정(영통)선거구

박광온동문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으로 경기 수원정(영통구)에서 첫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박동문은 중앙선관위 개표 결과 52.67%의 득표율로 이명박정부 비서실장 출신인 임태희 새누리당 후보(45.70%)를 놀렸다.

동문 연예인 19명 홍보대사 위촉



▲ 모교는 9월17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108주년기념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모교는 9월17일 오전 11시 본관 로터스홀에서 건학 108주년을 기념해 연극영화과 동문인 이덕화, 강석우, 이경규, 김상중, 김유석, 남성진, 유준

상, 이성재, 김정난, 채정안, 조여정, 소유진, 이윤미, 윤소이, 박하선, 윤아, 서현, 허가윤, 손나은 등 19명을 학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아름다운 예술인상



배우 최민식(82/89 연영)동문이 12월9일 '제4회 아름다운 예술인상'을 수상했다.

올해 관객 1,761만명으로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명량' 주인공을 맡아 뛰어난 연기력으로 영화의 힘, 배우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었다.

또 한국갤럽이 발표한 '2014년을 빛낸 연예인' 선정과 한국영화배우협회가 뽑은 '대한민국 톱스타상',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어 그의 인기를 과시했다.

이진영 동문 사시 합격



슈퍼모델 출신 이진영(영문01/06)동문이 11월13일 발표된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합격자는 204명.

이 동문은 180cm의 키에 이국적인 외모로 지난 1997년 제6회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모델로 활동하지 않고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해왔다. 결국 10여 년 만에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월호 故최혜정 동문 추모비

모교 사범대앞 룸비니동산에 세워져



원 및 역사교육과 후배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추모식은 약력 보고를 시작으로 추모비 제막, 현화 및 묵념, 추모사, 역사교육과 재학생 추모

합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82학번 동창회(회장=김종찬)는 지난 5월9일의 추모기금 마련행사 등을 통해 모금한 1,500여만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모교는 이 돈을 사범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불교학과동창회 정기총회



김용표 회장

불교학과동창회(회장=홍파스님)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행
사가 12월 11일 오후 6시
앰배서더호
텔 오키드룸

에서 열려 신임 회장에 김용표(69/78,
모교 불교학부 교수) 동문을 선출했
다. 감사는 김형중(79/82, 동대부중 교
감), 하춘생(83/90, 동국대 외래교수)동
문이 유임됐다.

10여년간 회장을 맡아온 홍파스님

과 선진규 전 전국신도회장을 비롯 권
기종, 서윤길, 이봉춘 모교 명예교수,
홍영춘, 김형태, 홍성숙, 권오현 동문
등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
은 이혜숙(74/79)동문의 사회로 결산
및 감사보고, 명예로운 동문상 수여,
임원 개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014 명예로운 동문상'은 열정적
인 포교활동과 학과동창회 발전에 앞
장서온 최성봉(49/55) 원로 동문에게
주어졌다.

이 자리에서 정환민 총동창회 사무
총장은 동창회 현안문제 등을 소개하
고 협조를 요청했다.

동대신문 동인회 송년행사

동대신문 동인회(회장=최은영) 정
기총회 겸 송년회가 신국주 전 모교
총장서리, 윤청광 방송작가, 김택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등 회원 50여
명과 동대신문 현역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1일 충무로 아리랑가든
에서 열렸다.

이날 신임 회장에는 정희성(79/83

국문, 시인)동문을 선출했다. 참석 회
원들은 각자 자기 소개에 이어 담소와
여흥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신임 정 회장은 이날 자신의 2번째
시집 '지금도 짹사랑-바람 돌 신풍
리'에 친필 서명한 후 모든 참석자들
에게 선물했다.

워싱턴동문회 송년의 밤

워싱턴동문회(회장=박공석, 77/82
법학) 송년회가 부부동반으로 12월 12
일 오후 6시 펠리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 29~31일

LA에서 열리는 미주총동창회 총회에
참석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에는 4차
례 자체 골프대회와 함께 봄·가을에
야유회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1회 텍사스 동문 골프대회

개교 108주년기념 제1회 텍사스동
문회 골프대회(준비위원장=오재관,
67/71농경, 前 한국일보)가 10월 12일
달라스에 있는 Luna Vista 골프코스
에서 열렸다. 27명이 참석한 이번 골
프대회에 송석환 총동창회장은 우승

트로피를 보내 격려했다.

△메달리스트(총동창회장상)=김진
석(82타) △1등=송영철(치과 원장) △
2등=이해숙 △3등=박용희 △여성조
1등=이영선 △근접상=이병학 △장
타상=민성기

본회 '말로 거는 전화' 개통

1636번 눌러 "동국대동창회"라고 말하면 연결

본회는 10월 24일 동문들의 연
락 편의를 위해 '말로 거는 전화'
를 개통, 운영하고 있다.

'말로 거는 전화'는 국번없이
'1636' 번을 눌러 "동국대 동창
회"라고 말하면 바로 본회 사무실
전화(733-0303, 733-0302)와
연결되어 통화할 수 있다. 이 전화

는 본회 전화 지역번호 및 7자리
숫자를 모두 기억하지 않아도 전
화기에 '1636'만 누른 뒤 안내멘
트에 따라 "동국대 동창회"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동국대 동창회"
라고 응답하면서 맞으면 "예"라고
대답함과 동시에 바로 연결되는
통화 시스템이다.



▲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부부가 11월 3일 정각원을 찾았다.

네덜란드 국왕 부부 모교 정각원 방문

한국을 국빈 방문했던 빌렘 알렉산
더 네덜란드 국왕과 막시마 소레기애
타 왕비가 11월 3일 동국대 정각원(원
장=법타스님)에서 열린 '창조 및 학
습 경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국왕 부부는 정각원으로 가는 길에
김희옥 총장과 함께 '동국의 종' 타종
장면을 유심히 살펴봤다. 법타스님은
"오늘은 150년만에 다시 왕이 정각원
을 찾은 뜻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5명 · 행정고시 6명

법무부가 9월 26일 발표한 사법시험
2차에 5명이 합격했다.

△최윤종(법학 13졸) △신용철(경제
01졸) △임동호(법학 08졸) △이래훈
(법학 10졸) △이진영(영문 01)

또 동문 및 재학생 6명이 12월 2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올해 5급 공무
원 채용시험(옛 행정고시) 합격했다.

올해 5급(행정) 공채시험에는 1만
103명이 응시해 전국 모집 272명, 지
역모집 37명 등 총 309명이 최종 합격
했다.

◆전국=△남성숙(일반직, 04정외/
수료) △이진영(검찰직, 10법학/휴학)
△김동하(보호관찰직, 05경찰행정/수
료) △최진우(국제통상직, 06법학/4년
재학)

◆지역=△이규석(인천시, 02/08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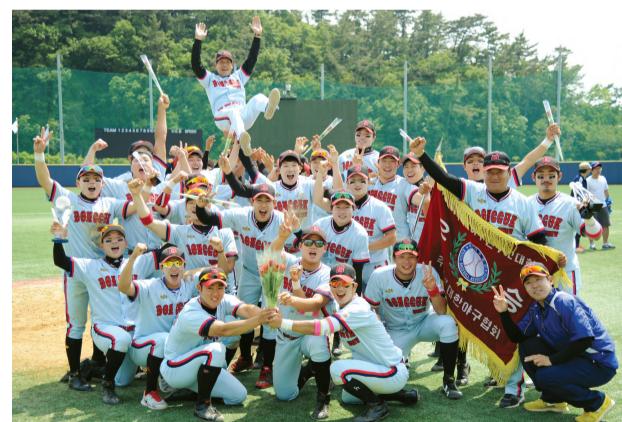
찰행정) △조원태(세종시, 02/11행정)

공인회계사 2차 25명 합격

제49회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
에는 25명이 최종 합격했다.

- 회계학 전공=△고일태(08) △권순
형(08) △김진희(07) △김형진(06) △
김혜지(08) △박건화(08) △송태호
(06) △안용현(07) △오민지(08) △오
승민(07) △오지숙(05) △이용협(07)
△이종희(07) △장영경(06) △조민영
(11) △조한주(04) △최정환(09) △허
성지(03) • 경영학 전공=△권준태
(06) △박수민(03) △이석민(03) △이
창민(02) • 기계공학 전공=△이송배
(98) • 전자전기공학 전공=△나현
(10) • 통계학 전공=△최정현(05)

야구부, 37년만에 전국대회 4관왕



모교 야구부(감독=이건열)가 11월
3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
육대회에서 인천 대표로 출전한 인하
대를 8:1로 꺾고 우승했다.

야구부는 2013년 대학야구 3관왕
에 이어 올해 '2014 전국대학야구 춘

계리그 우승' '제69회 전국대학야구선수
권대회 우승' '2014 KBO총재기 전국대학
야구대회 우승'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일반부 우승'을 함으
로써 대학야구 4관왕
이라는 모교 야구부
역사상 최초의 기록

을 세웠다.

4관왕은 대학야구 사상 37년만의
일이다. 또 2013년 1월 이건열 감독이
부임한 후 2년간 대학야구 7관왕을
달성한 것은 대학야구 역사상 전무후
무한 대기록이다.

“세월은 가도 정은 새롭네”

65학번 국문학과 ‘동록회’를 아시나요

국문과 65학번 동기 남학생 모임인 ‘동록회’ 회원들이 부부동반으로 모처럼 섬 여행을 다녀오며 옛정을 되새겼다. 김갑기 박태원 손낙훈 이계홍, 그리고 62학번이지만 1학년때 군입대를 한 바람에 1학년 2학기에 복학해 사실상 65학번인 하덕조(가나다순) 동문이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동국대학교에서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꿈을 키웠다는 긍지를 살렸다”는 뜻으로 모임 이름을 ‘동록회’라 짓고 십 수년 전부터 정기·부정기 모임을 가져왔다. 매사에 성실남인 박태원 동문이 총무를 맡아 지금까지 웃은 일, 험한 일을 도맡아 해오고 있다.

동록회원들은 지난 10월 17일 서산 AB지구방조제(간월도)-안면도 안면암-태안군 승언리 자연휴양림-꽃지해수욕장 코스를 부부동반으로 다녀왔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차들이 밀리고 김갑기 회원이 아들의 최신 고급승용차를 ‘폼나게’ 처음 몰고온 통에 관 속도가 떨어져 스케줄이 다소 지체되긴 했으나 무탈하게 정해진 코스를 소화해냈다.

간월도 방조제를 지나 안면암-생태연습장을 돌아보고 꽃지해수욕장에서 낙조를 바라보는 코스는 가을여행의 진수를 한껏 맛보게 했다. 모임에서 무엇보다 사모님들이 들뜬 모습이었다. 매년 송년회 부부모임을 가지긴 했으나 바다여행은 처음인지라 사모님 모두들 감회에 젖은 표정들이었다. 그동안 모임에서 남자들만 시시껄



▲ 회원들이 오랫만에 부부동반으로 섬 여행을 다녀왔다.

렁한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부인들이 지루하고 답답해했지만 이 날은 확 트인 바다 때문인지 그들이

종팔 정태하 등 몇몇 동문이 참여했으나 개인사정으로 나오지 않고, 대신 ‘사실상 65학번’인 하덕조 동문을 모

자녀 주례… 부부동반 여행도 여자동기 별도모임 초청 검토

주체가 되어 더 활발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동록회는 2000년 전후 (주)신도리코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손낙훈 동문이 남녀 동기생들을 강남의 레스토랑에 초청하는 등 단단한 물주 노릇을 하며 활성화됐으나 세월이 가면서 흐지부지됐다. 이때 진선여고 교무부장 중책을 맡고 있던 박태원 동문이 “이래선 안된다”고 분기탱천, 모임 재활성화의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부정기적이지만 꾸준히 모임을 이어오다 2007년부터 정식 회계장부도 만들고 회비도 거두면서 모임이 정착됐다. 그동안 김

시기로 해 함께 모임을 이어왔다. 한국의 대표적 시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하동문의 참여는 모임의 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여기에 학창시절 학과대표로 말없는 가운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던 손낙훈 동문의 그림자 지원이 활성화의 큰 동력이 되어주었다.

동록회원들은 회원들의 애경사를 늘 함께 해왔다. 이계홍 동문은 손낙훈 동문의 아들 규동(우리카드 과장) 군의 주례를 서기도 했다. 그는 신랑 신부 모두 명문 은석초등학교 동기동창생인 점을 알고 주례사에서 “초등

“동국대학교에서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꿈을 키웠다는 긍지를 살렸다”는 뜻으로 모임 이름을 ‘동록회’라 짓다

학교때부터 신부에게 작업을 걸었느냐”고 신랑에게 따져 물어 결혼식장에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김갑기 동문의 아들 경남(변호사)군이 유치원 다니던 때 잠실 YMCA 수영부 입학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당시 동아일보 스포츠부 기자의 ‘권력’을 행사해 말끔히 민원을 해결해줌으로써 사모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라버니’라는 대접을 받고 있다. 신도리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손낙훈 동문은 이계홍의 동아일보사 선배 아들 입사를 받아주기도 했다. 또한 김갑기 동문은 박태원 동문의 아들 상현(신한투자금융과장)군의 주례를 서주었다. 이밖에 자녀결혼, 부모님상, 출판기념회에 회원들이 빠짐없이 참여해왔다.

모임의 색깔은 없지만 하덕조 동문이 여행을 마친 뒤 남긴 문자 메시지 그대로 ‘세월은 가도 정은 새롭네’가 모임의 기본 컬러다. 자기 분야의 전공에 충실하면서 편하게 만나 편하게 지내자는 것이 기본 목표.

별도 모임을 하고 있는 여학생 동기들과 다시 만나자는 계획도 검토하는 등 발품을 더 팔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1월엔 하덕조 동문이 오찬모임의 호스트가 돼 뷔페모임을 갖기도 했다. 송년회엔 부부동반 모임과 겨울여행 및 차후 해외여행도 추진하겠다는 게 박태원 총무의 야무진 포부다.

〈홍보위원장 이계홍〉

59학번 김성말·민경진 동문 75세 나이 잊고 자전거로 4천6백리 국토길 종주하다



김성말 동문



민경진 동문

70대 중반의 두 동문이 자전거에 동국흔을 싣고 국토종주를 완주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제학과 59학번 동기인 김성말(74세, 전 포스코건설 감사부장, 전 포철동문회장) 동문과 민경진(75세, 에스젠 본부장) 동문.

두 동문은 대학 3학년때 ROTC 1기로 같이 뽑혀 더욱 가까운 친구 사이다. 다만 김 동문이 3대 독자여서 중도에 ROTC를 포기하고 6개월짜리 군대생활을 하는 바람에 졸업은 서로 달랐다. 두 동문은 지난 5월22일, 3년에 걸친 4,600리 국토종단 대장정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가족 반대에 확인서 쓰고 출발

두 동문은 경제학과 59학번 동기 모임을 통해 자주 만남을 가져온 사이로, 2011년 가을 모임에서 서로 자전거 매니어임을 확인하고 국토종주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우리가 제각기 생업에 매달리다 보니 자기 생활에 투자하지 못해 아쉬웠다. 4대강이 완공되면서 인천 아라뱃길에서 시작하여 부산 낙동강

하구둑까지 자전거길이 열렸으니 이번에 우리 함께 도전해보자고 했다.”

그러나 두 동문 모두 칠순이 넘은 나이와 더운 날씨, 먼 길, 체력 등에서 위험하니 포기하라는 것이 가족들의 주문이었다.

자전거길 종주는 첫해(2012년) 여정으로 6월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인천 아라뱃길 서해 갑문을 출발, 양

에서 목포 영산강하구둑까지의 영산강 줄기 366km(915리)를 차례로 종주했다.

그리고 금년 봄, 5월12일부터 22일 까지 13일간은 전주에서 광양 배알도 수변공원에 이르는 코스와 부산 동래에서 울산방어진 삼척 속초 등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총874km(2,185리)를 달려 마침

“용맹정진은 바로 동국정신”



▲ 섬진강에서 휴식을 취하는 김성말(왼쪽) 동문과 민경진 동문.

평 수안보 구미 합천 함안을 거쳐 부산 낙동강 하구둑에 이르는 633km(1,583리)를 달렸다.

3년간 매년 봄 3코스로 나눠

그 다음해인 2013년 5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은 춘천 소양호를 출발해 북한강 철교까지의 한강 줄기, 대청댐에서 군산까지의 금강줄기, 담양

내 대장정을 마무리 했다.

두 동문은 3차년도에 걸쳐 26일동안 총 1,873km(4,683리)를 자전거 폐달을 밟으며 국토 끝자락인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마무리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감격의 만세를 불렀다.

험난하고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땀과 동국의 혼으로 이뤄낸 감격을 한껏 만끽한 것이다. 도전과 성취의 참 맛을 스스로 체험했다는 것이 값지고 자

랑스러웠다.

이번 장정에서 두 동문은 새벽 5시부터 폐달을 밟아 어두워질 때까지 달렸고, 평균속도는 시간당 20km, 평균거리 1일 120km를 소화해냈다.

시속 20km로 하루 120km 달려

그러나 40km가 넘는 고령재와 상주의 가파른 언덕길은 긴 여정에 고통을 준 코스로 잊혀지지 않는다.

학창시절 홍 우 교수는 ‘고진감래’라는 교훈을 주셨다.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듯이 자전거 길에서의 여정도 그러했다. 도로 옆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광과 푸른 바다는 지친 몸과 마음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강변 길, 그리고 음식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

아직 할 일 남아… 새 계획 구상

얼마나 축복받은 국민인가? 세계에서 국토종주 자전거 길이 이렇게 잘 조성된 국가는 한국 뿐인 것 같다.

두 동문은 서로 두 손을 맞잡으며 “아직도 우리는 할 일이 남아있다”며 또 다른 꿈을 세워 보자고 다짐했다.

“우리가 모교 동국대학교에서 배운 것은 자기 성취를 일궈내기 위한 부단한 도전정신과 계획한 꿈의 실현이었다. 후배들도 우리의 이런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한 꿈을 꾸는 것이 동국정신 아닌가.”

〈사무국장 신관호〉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납부 계좌 안내

국민은행 665501-04-045285
(예금주 : 원용선 동국대총동창회장)

〈 2014년 7월 1일 ~ 2014년 12월 22일 접수분 〉



회장 원용선
2,500만원



김희형 (56정치)
고문 100만원



이희봉 (99불원)
부회장 200만원



강영규 (70경행)
부회장 100만원



공석돈 (79회계)
부회장 100만원



김종찬 (82교육)
부회장 100만원



김진억 (73경영)
부회장 100만원



김환배 (68연료공학)
부회장 100만원



박대신 (69국문)
부회장 100만원



서영준 (64법학)
부회장 100만원



이원희 (86경영)
부회장 100만원



이재형 (64불교)
부회장 100만원



이태근 (56정치)
부회장 100만원



임규영 (68경제)
부회장 100만원



전영화 (65경행)
부회장 100만원



정환민 (65농학)
부회장 100만원



최인 (64상학)
부회장 100만원



황경환 (87교원)
부회장 100만원

지도위원 회비

- ▲ 이정화 (84무역) 10
- ▲ 조시승 (69경제) 10

일반 년회비

- ▲ 남균우 (58법학) 30
- ▲ 신승길 (58경제) 30
- ▲ 윤길한 (64정외) 30
- ▲ 이진호 (64농경) 30
- ▲ 조창현 (64경행) 30

상임이사 회비

- ▲ 강준매 (97불원) 3
- ▲ 구영철 (67경영) 3
- ▲ 김도정 (97경제) 3
- ▲ 김상구 (74경영) 3
- ▲ 김연중 (97북한) 3
- ▲ 류승희 (65경영) 20
- ▲ 신관호 (69경제) 20
- ▲ 오재관 (67농경) 20
- ▲ 이동은 (86인철) 20
- ▲ 이윤훈 (73정외) 20
- ▲ 이춘필 (99불원) 20
- ▲ 임창수 (95사대원) 20
- ▲ 김용성 (93교육) 3
- ▲ 김윤희 (89행원) 3
- ▲ 김종권 (87통계) 2
- ▲ 김효수 (83경제) 3
- ▲ 박래학 (61경제) 3
- ▲ 신석희 (60사학) 3
- ▲ 심기열 (81회계) 3
- ▲ 여인근 (58임학) 3
- ▲ 이장걸 (56사학) 3
- ▲ 이재진 (69경제) 3

이사 회비

- ▲ 김상만 (82지교) 10
- ▲ 김성말 (59경제) 10
- ▲ 박시역 (60법학) 10
- ▲ 박영호 (64경행) 10
- ▲ 배충남 (62상학) 10
- ▲ 최인 (64상학) 10
- ▲ 백대운 (70전자) 10
- ▲ 이상호 (89산공) 10
- ▲ 한도수 (58경제) 3
- ▲ 허경 (83사학) 10
- ▲ 김상만 (82지교) 10
- ▲ 김성말 (59경제) 10
- ▲ 박시역 (60법학) 10
- ▲ 장익선 (71물리) 3
- ▲ 조성현 (84사회) 3
- ▲ 최종태 (57법학) 3
- ▲ 한도수 (58경제) 3
- ▲ 허경 (83사학) 10